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총포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은 나라 천만국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 과감히 펼쳐나신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총포사격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비반총포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경기는 추첨으로 정한 부대별사격순차에 따라 화점목표와 땅크목표들을 사격한 다음 가장 우수한 단위들이 먼거리에서 화점목표를 더 사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경기대회에는 조선인민군 제1군단, 제2군단, 제5군단안의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훈련지휘관으로부터 경기진행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일시 교묘했던 대기를 깨치며 포사격구령이 내렸다.

순간 멸적의 포신들이 시뻘건 불꽃기를 내뿜었으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포탄들이 목표들을 명중하였다.

포신에서 뿜어져나가는 포탄 한발한발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통일의 열병광장에 모시려던 념원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기어이 이루려는 총대전사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신념과 열망의 불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미더운 전선의 전투원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시였다.

경기대회 제1차, 제2차사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위들이 선발되어



1,500m 거리에 있는 화점목표에 대한 결승사격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의 군인들이 불의의 정황속에서 1,500m 거리에 있는 화점목표를 격파하였는데 역시 근위부대가 다르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사격경기대회는 백번 싸우면 백번 승리하고야마는 백두산혁명군군의 싸움본래, 싸움기질을 보여주었다.

사격경기대회에서는 제2군단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이 특등을 하였다.

군단별순위에서는 제2군단, 사단별순위에서는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이, 포별순위에서는 제5군단 제25보병사단 직속구분대가 1등을 쟁취하였다.

우수한 부대에 명포수상장이,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장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특등을 쟁취한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에 명포수상장을,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

장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포수상장과 명포수메달, 명포수휘장은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고귀한 총정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2015년 첫 명포수들은 일당백의 고향부대에서 나왔다고, 《근위부대자랑가》를 궁지놀이 부르며 부대로 뗏뗏하게 돌아갈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잘 싸웠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근위부대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그러자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걱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제2군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의 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들을 명사수, 명포수로 준비시키는것은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당에서는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받기하였다고, 이 운동은 군력강화의 전환적시기, 리정표로 된다고 하시면서 명사수, 명포수운동이 군인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도록 군사정치사업을 지향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에도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훈련을 소홀히 하면 총대에 녹이 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칠성판우에 오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미래는 강력한 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마련된다고, 따라서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곧 치렬한 전투와 같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과 훈련집행자들은 전투정치훈련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고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읽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해내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조국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대치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끓어오른 민족적구애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등 올해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격동적인 투쟁구호도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하신 획기적인 방안들과 과업들은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

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5 000여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지난 세기 40년대 중엽에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열의 멍에를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비극이고 통분할 일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상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것처럼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못낼 일이 없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

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통일이국성전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뜻깊은 2015년에 불신과 대결의 어둠을 걷어내고 온 삼천리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지난해에도 북남고위급접촉으로 모처럼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었지만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온 한해 광란적으로 벌어졌으므로 하여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에로 치닫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였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행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전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행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차레질것은 수치와 참패뿐이다.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북과 남은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

록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단합, 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것은 장장 70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북남관계는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함께 손잡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북과 남에 비록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그것은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북남사이 존재하는 여러 차이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이 훨씬 더 크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들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년사에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구애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세나가기 위해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

## 해외동포단체 인사들이 강조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가 2일 해외동포단체 인사들의 신년회를 열었다.

리통제 제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회장은 《거족적통일운동양양에 앞장서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더이상 민족이 갈라져 살아가는 안된다고 언명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공안탄압과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고 밝혔다.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지만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통일운동을 양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통협결성 25돐을 맞는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높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광동의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정신으로 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하면서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림민식 조국통일법민족련합 해외본부의 장은 지금 우리 민족은 자주나 예속이나,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력사의 물음앞에 서있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분발해나서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송헌근 《제일한국민주통일련합》의장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올해 일본 각지에서 조국통일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제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은 동포청년들이 참된 애국의 길, 통일의 길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제일한국민주녀성회》 회장은 동포녀성들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운동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극장무대에서뿐 아니라 온 나라 남녀로소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펴주시며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그리는 친근한 김정은동지

인민의 령도자.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공화국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과 고마움의 분출이다.

국사를 펴고 인민을 돌보는 령도자의 실력과 품모는 현실을 통해 평가된다.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출중한 자질과 인품을 지닌 령도자는 인민이 스스로 따르며 절대적인 존경과 호모를 받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실력과 고매한 품모에서 사람들은 조국의 밝은 앞날과 민족의 전도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그대로 이으신 정치가의 귀감이시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진로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일일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계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지름길을 명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력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가경제력을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건설업무를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정치, 군사, 경제적압박들은 류레없이 악랄하고 끈질기게

감행되고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단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 령도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수호되고 국력은 나날이 강화되고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과 같은 폐거는 국력 강화를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 자주적방위와 의지가 안아온 민족의 대경사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자신의 정치신조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였기에 인민을 위한 길에서 겪으시는 고생은 오히려 락으로 여기시며 날과 날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이어가신다.

인민들이 새살림을 편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력지구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며 웃음소리 끊길줄 모르는 문수 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류경민, 인민야외빙상장, 룡라곰둥이관,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한 창조물마다에 그이의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비껴여있다.

불과 2~3년 사이에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은 모두 인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우도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게 해

야 한다고 하시며 휴먼지 날리는 건설현장을 낚어도 찾으시고 밤에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그리도 기쁘시어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

씩 몽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 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사는 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일을 더 잘하고 하신 원수님이다.

사랑하는 인민이라 부르시며 육친의 정과 같은 다심하고 세심한 손길로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보살피시는 그이께서는 창건거리의 새집들이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집주인들의 생활현황을 알아보시기 위해 로동자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시였다.

신혼부부의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을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도 물으시며 창건거리를 지나고서도 인민들 지니 들러 태어난 아이를 보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지는 따뜻하고 친근한 정은 인민들이 마음속 한결의 그늘도 없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령도자와 인민간에 오가는 진한 혈연의 뉴대인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매한 인품과 인민사랑의 정에 매혹된 공화국인민들은 말하고있다. 어머니상에 끌려 운명을 맡겼다고, 인민사랑의 숭고한 정치에 매혹되어 심장을 바친다고

본사기자 리경순

선군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리념이고 기본정치방식이다.

공화국이 선군의 보검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국력을 억척같이 다져왔기에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풀아오려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이 끈질기게 책동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감히 선 불질을 못하고있는것이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자기 할 소리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올수 있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남조선에서 《년례적》이니, 《방어》니 뭐니 하면서 《키 리프트》,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속 벌려놓으며 온 한해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전쟁연습책동에 대처하여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전

투력과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지도록 하시였다.

지난해 년초부터 조선인민군 항공전투부대들의 야간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군력강화의 기본인 싸움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시며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나가야 한다고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적들과의 대결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군인들이 언제 어떤 정황과 조건이 조성되여도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의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면 높은 사상적각오를 안고 훈련을 실천처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구부대들의 전술훈련,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구분대들의 비행훈련,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 항공특전부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 타격실동훈련, 연합부대사회의

행방실동훈련, 대련합부대들의 판하 부대들의 연합합동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위파리떼가 덮여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나라의 평공을 다 거상한채 선군의 비행사들이 모두 평양에 모여 비행사대회를 가지도록 하시고 비행사들을 조국수호

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공화국은 선군의 보검을 더욱 억세게 다져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앞살라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이라고 하시였다.

공화국의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선이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감으로써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2015년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

새해를 맞은 기쁨과 긍지, 량만과 최열속에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승리의 날들이 영화화처럼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에 공화국이 복잡한 대외정세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세계의 초점을 모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많은 지난해 건설현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물의 설계와 시공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

### 령도자의 결심과 실천

와 건설자재와 수단, 건설력량편성 등 건설전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세월을 주름잡는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속에서 위성과과학자주력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세워지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얼마나 환희롭고 이런 벽찬 시

대에 사는 인민은 또 얼마나 긍지높은가.

피눈물의 언덕에서 령도자와 어깨걸고 발걸음도 함께 하며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제손으로, 제힘으로 거창한 창조물들을 하나둘 일떠세우며 사람들은 고생끝에 맞서는 락을 알았고 창조와 로동으로 느끼는 생의 보람과 그 진가도 알았으며 령도자를 따르는 길에 반드시 승리와 행복이 있다는것을 진리로 새기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

본사기자 김철진

## 새해의 첫발걸음

도서들도 많이 만들어 리용할데 대해서도 이리시였다. 원수님의 품에 아이들은 안겨지며 아버지가 불렀다. 그들은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새해의 첫날에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흔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실음의 대명사로 불렀다. 안아줄 부모의 마스한 품도 없고 가정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정도 모으며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것이 보통 고아들의 생활이라

중얼같은 원아들의 집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마스한 온기였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고 보살핌이 엿보이는 따뜻한 집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는 아무 상관없다는듯 아이들은 저저마다 나에게로 다가들며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운 자랑을 하였다.

원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셨다고 하는 조각에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교산과수농장, 세포지구축산기지,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건설에서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 나라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거창하게 변모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고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고아들은 불쌍한 처지에서 허덕이고있다.

그러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실음과 눈물을 없애고 원수님께 자들이 준비한 첫발을 보여드리었다.

가장 행복한 아이들의 궁전에 이해의 첫날에 소리를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공연을 보여주시는 원수님 눈가에 또 뜨거웠던 것이

지난해 2월 원래 있던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실음이 많다고, 아이들을 그늘없이, 부모없는 실음을 모르게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고 손수 원아들을 위한 물고기 보양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몇달후인 6월 1일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을 찾으시던 원아들의 품이 아기도 들어주시였으며 아이들의 물놀이도 보여주시였다. 지능놀이실에 둘러서서 보육교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어린이용지능

대해서도 이리시였다. 원수님의 품에 아이들은 안겨지며 아버지가 불렀다. 그들은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새해의 첫날에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흔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실음의 대명사로 불렀다. 안아줄 부모의 마스한 품도 없고 가정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정도 모으며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것이 보통 고아들의 생활이라

중얼같은 원아들의 집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마스한 온기였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고 보살핌이 엿보이는 따뜻한 집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는 아무 상관없다는듯 아이들은 저저마다 나에게로 다가들며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운 자랑을 하였다.

원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셨다고 하는 조각에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교산과수농장, 세포지구축산기지,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건설에서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 나라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거창하게 변모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를 물은 사람이라면 다 따듯이 풀어안아 내세워주는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오늘 공화국에 날마다 펼쳐지는 인민을 위한 희한한 창조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이 낳은 현실이다.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애국헌신이 있어 인민의 꿈과 리상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세상에 부럼없이 만복을 누릴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음을 체험하고있다.

참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온몸으로, 폐부로 느끼며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령도따라 애국충정을 다할 열의로 마음을 불태우고있다.

위인에 대한 호모는 매혹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날과 날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를 어찌 인민들이 열렬히 받들고 따르지 않으랴. 그이 가시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이 남너로소할것없이 걱정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며 그이의 품에 너도나도 안기는 감격의 화폭이야말로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으로 하나가 된 공화국의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매한 인품과 인민사랑의 정에 매혹된 공화국인민들은 말하고있다.

어머니상에 끌려 운명을 맡겼다고, 인민사랑의 숭고한 정치에 매혹되어 심장을 바친다고

본사기자 리경순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며 온 나라 인민은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다시금 감복하고 격정을 눈곱을 다스쳤다.

철없는 원아들도 그 품이 너무도 따스하고 고마워 행복의 웃음을 짓고 원수님께 자들이 준비한 첫발을 보여드리었다.

가장 행복한 아이들의 궁전에 이해의 첫날에 소리를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공연을 보여주시는 원수님 눈가에 또 뜨거웠던 것이

지난해 2월 원래 있던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실음이 많다고, 아이들을 그늘없이, 부모없는 실음을 모르게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고 손수 원아들을 위한 물고기 보양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몇달후인 6월 1일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을 찾으시던 원아들의 품이 아기도 들어주시였으며 아이들의 물놀이도 보여주시였다. 지능놀이실에 둘러서서 보육교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어린이용지능

대해서도 이리시였다. 원수님의 품에 아이들은 안겨지며 아버지가 불렀다. 그들은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새해의 첫날에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흔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실음의 대명사로 불렀다. 안아줄 부모의 마스한 품도 없고 가정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정도 모으며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것이 보통 고아들의 생활이라

중얼같은 원아들의 집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마스한 온기였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고 보살핌이 엿보이는 따뜻한 집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는 아무 상관없다는듯 아이들은 저저마다 나에게로 다가들며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운 자랑을 하였다.

원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셨다고 하는 조각에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교산과수농장, 세포지구축산기지,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건설에서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 나라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거창하게 변모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이들이 아니겠는가. 나에게는 문득 설날부터 시작된 열두달은 우릴 위한 사랑의 한해라고 부르던 아이들의 노래 가락이 떠올랐다. 위대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은 원아들을 비롯한 아이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다 미치고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날은 이 나라의 남너로소 누구에게나 제일 기쁜 날이 아니겠는가. 나는 노래하고 춤추며 마냥 웃는 원아들의 모습에서 보다 더 아름다워질 내 나라의 미래를 그려보며 생각하였다. 자애로운 원수님을 모신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원수님 계시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년 열두달 기쁨만 있을것이라고

김연희

#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김정은

어언 70년이 흘렀다. 일제의 식민지화술을 꺾어버린 해방의 기쁨이 조국의 남녘땅을 짓밟은 미군의 군화발에 의해 분렬의 슬픔으로 바뀌었지 어언 70년이 흘렀다. 70년, 강산이 변한다든 10년세월이 무려 일곱만 바뀔 오렐 세월이다. 이 기나긴 세월동안 우리 강토는 허리가 잘리운체 아직도 피를 토하고있고 갈라진 부모형제들이 서로 찾고 부르며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 더 이상 허용할수 없다

얼마이고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통일》을 부르짖은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또 그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통일을 그토록 원했건만 아직도 우리는 물로 갈라진채 또 한해를 맞이하고 있다. 갈라져서는 살수 없고 하나로 합쳐져야 살수 있는 유기체와 같은 우리 민족이 70년세월을 물로 갈라져있으니 당한 고통과 쓰라림은 그 얼마라. 이 땅의 누구에게나 물어 보라,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철부지어린이도 동글은 할머니도 한결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한다. 그만큼 통일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이 땅의 어느 가정이나 절박하고 절실한것이다. 하기에 이 땅의 아이들은 연을 띄워두고 통일연을 띄우고 통일주체의 노래가 울릴 때면 사람들은 저마다 뜨거운 격정을 눈곱을 적시는것이 아니라.

수천년세월 자기의 풍성한 열매로 겨레의 삶을 이어주던 이 땅이 통일을 부르며 통일을 위해 뿌리고 흘린 민족의 피와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몸부림치고있다. 북녘의 소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동시가 있다. 뛰뛰뽀뽀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더니 남녘의 동무들 찾아간대요

그런데 이 동시를 배우며 자란 소년, 소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그 자동차는 분계선에 길이 막혀 남녘의 동무들을 찾아가지 못하고있다. 열혈의 청춘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목청껏 웨치고 8월의 폭양에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를 등밀고도 하였다. 원한의 분렬장벽을 무너뜨리려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판문점을 넘어간 잿나시대학생과 교령의 인사도 있었다. 해마다 6.15공동선언기념일과 8.15를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곳곳에서 벌어지곤 하는 통일집회는 그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에 온 민족이 들고나 가야 할 통일에국의 구호를 제시해주셨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마다마다 통일에국의 피가 끓고 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 힘과 용기가 치솟게 해주는 투쟁의 구호, 전진의 구호이다. 민족이 통일의 리상향을 향해 나아가자면 투쟁의 구호가 있어야 한다. 통일에국의 구호는 민족을 통일의 끝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라침판이고 민족의 힘과 노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얼마나 뜻이 깊고 힘과 열정이 끓고 하는 고무적인 기치인가. 이 구호를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만 보아도 통일신심이 넘치고 겨레가 것처럼 바라는 통일이 눈앞에 설کم 다가드는 것만 같다.

올해에 우리 겨레가 정점해야 할 통일투쟁의 목표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는것이다. 작은 길도 아니고 대통로이다. 그만큼 올해를 자주통일운동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올해는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면서도 민족분렬의 70년을 세기는 해이기도 하다. 70년간 지속되고있는 국도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온 겨레에게 해어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몰라보고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가슴아픈 현실, 피를 나는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방대한 인적, 물질자원이 동족간의 무의미한 대결에 소모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게 모두에게 민족적사명감을 일깨워주고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힘은 다 른 그 어디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된 힘과 노력에 있다. 누구도 조선민족을 대신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시켜줄수 없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침략적인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민족의 힘이 제일이다. 민족의 뜻과 힘을 하나로 합치면 못

를 맞으며 통일을 넘원하는 부산지역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70년동안 지속되어온 민족분렬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당면하여 《정부》가

조선민족의 자존심, 세계를 앞서나가는 민족의 슬기와 재능, 힘이 분렬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민족의 넘과 기상이 어린 백두산이 노호한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수난을 우리 손으로 단호히 끝장내라고, 분렬의 긴긴 어둠을 통일의 새 아침으로 바꾸라고.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분렬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북남관계의 개혁사,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야 할 2015년이다.

2015년은 대결의 또 한해가 될수 없다. 분렬의 년륜이 또 한번 감기는 폐사로운 한해가 될수 없다. 이해는 지금 북과 남에, 우리 겨레에게 폭풍쳐 소리치고있다.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라고, 자주통일의 좁은 길이 아니라 대통로를 열라고, 통일의 물결이 북남삼천리에 파도치고 백두산의 천지물과 한나산 백록담의 푸른 물을 하나로 합쳐라고.

통일은 분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우리 겨레의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만 닦아주는것이 아니다. 존엄하고 부흥할 통일강국과 민족의 창창할 래일을 대대손손 담보해줄 겨레의 력사적위업이다. 하나된 조국은 세계를 앞서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긍지, 위력을 최상최대로 펼쳐줄것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을 외세의존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침략적인 외세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약탈하게 가로막으며 북과 남이 계

속 싸우고 조선반도가 핵전쟁의 재난터가 되게 하기 위해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통일을 안아오는 열쇠는 오직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이다.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별 일이 없다. 우리에게 북과 남이 손을 잡고 화해와 단합의 새 력사를 써온 좋은 경험도 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소리높이 웨치며 평양과 서울, 부산과 광주, 금강산에서 겨레가 열싸안고 통일을 웨치던 6.15의 감격을 되새겨보라.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날 흥분으로 살이 떨리고 숨이 차온다. 6.15시대를 겪으며 남녘인민들은 북녘에는 얼굴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나온 괴물들이 아니라 생김새도 같고 같은 말을 하는 한혈육, 한겨레가 살고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한다. 참으로 6.15는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완료

형이며 우리 민족끼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해나갈 때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다시한번 이 땅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차넘치게 하자. 끊어진 국도와 민족의 혈맥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자.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여, 그 어떤 난관과 도전도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을 뛰어넘진 못한다. 어깨걸고 힘을 합쳐 통일을 위해 달려나가자! 70년전 이 땅 삼천리에 차넘치던 해방의 환희가 통일의 기쁨과 환희로 이어지도록 2015년을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2015년을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본사기자 최명재

자주통일의 대통로

조국통일의 열망이 새해를 뜨겁게 달아주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하시였다. 자주통일의 대통로!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렬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겨레는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던 1940년대 중반기에 외세에 의하여 물로 갈라지는 동분할 비극을 겪게 되였다. 그대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든 10년세월이 7번이나 바뀌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

고 민족은 영영 물로 갈라지게 된다.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뜻과 힘을 합칠것을 요구하고있다. 견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자고 하시였다. 자주통일의 대통로!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렬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겨레는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던 1940년대 중반기에 외세에 의하여 물로 갈라지는 동분할 비극을 겪게 되였다. 그대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든 10년세월이 7번이나 바뀌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

본사기자 리경월

통일애국의 길에서 종교인들도 앞장서겠다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서철수와 기자가 나눈 대담—

기자: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를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지금 무한한 흥분과 감격에 휩싸여 있다.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현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서철수: 우리 나라가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어오는 오늘날까지도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깃들지 못하고 전쟁의 검은 불기둥이 시시각각 밀려오는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에 의해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 겨레에게 얼마나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뜨였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아직도 그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조선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지난 세기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빚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참가자들은 《분단 70년을 끝내자!》는 구호를 웨쳤다. 본사기자

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지난해에만 보더라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온 한해 광란적으로 벌어진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프 리덤 가디언》과 같은 전쟁연습소동들때문에 북남사이의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좋게 마련되어가던 대화분위기가 파탄되는것과 같은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였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 공화국이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력사를 통하여 남김없이 증명되였다. 누구도 공화국의 아량과 인내력을 오관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이 스스로 화를 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걸음 돌려야 한다. 기자: 올해의 신년사에는 북과 남이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철수: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은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북과 남이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련방국가형태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련방국가형태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국이 자기의 사회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았으며 강요한것도 없는 이상 남조선당국도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 결의에 넘쳐있는 평양시군중대회 참가자들

조국통일의 열망이 새해를 뜨겁게 달아주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하시였다. 자주통일의 대통로!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렬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겨레는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던 1940년대 중반기에 외세에 의하여 물로 갈라지는 동분할 비극을 겪게 되였다. 그대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든 10년세월이 7번이나 바뀌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

본사기자 리경월

약화된 북남관계에 어떤 복잡성을 조성하였는가 하는것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연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는것은 새해의 언덕에서 울려나온 공화국의 획기적인 통일에국의 제의이고 호소이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은 전적으로 호응해나서야 한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장소에서 울려 퍼진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의 우렁찬 함성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뭉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희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하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이 오늘 우리 겨레에게 나선 최대의 파업이다. 우리 카톨릭교인들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길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갔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온 겨레를 통일에국에로 부르는 구호

## 부산시민들 민족분렬을 끝장낼것을 주장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부산시민들이 모임을 가지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낼것을 주장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새해

를 맞으며 통일을 넘원하는 부산지역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70년동안 지속되어온 민족분렬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당면하여 《정부》가

《5.24조치》해제, 금강산관광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분단 70년을 끝내자!》는 구호를 웨쳤다. 본사기자

#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해 나가자

## 긴장완화의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새해 2015년을 맞으며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공화국의 획기적인 호소는 지금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위협하는 위협천만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은 신의있는 대화를 할 수 없게 하고 정세를 긴장화하고 전쟁점점으로 끌고가기 때문이다.

북남대화는 우리 민족의 리익을 위한것이고 북침전쟁연습은 미국의 전조선반도와 세계지배야욕에 따라 벌어지는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범죄행위이다. 그 외세의 침략

적리해관계를 위해 우리 민족의 리익, 북남관계를 회생시킬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미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40여년의 수난을 민족분열 70년의 비극으로 이어놓은 기본장본인이다.

백수십년전부터 조선반도에 주린 눈부리를 둘러온 미국, 지구상에서 가장 침략적인 미국이 1950년대에는 우리 민족에게 전조선전쟁을 강요하였으며 핵폭탄까지 들쳐우려 하였다.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우리 민족을 겨냥한 미국의 침략포성은 오늘까지도 계속 울리고있다.

《림 스피리트》, 《울지 포커스 렌즈》, 《키 리졸브》, 《울지 프리덤 가디언》...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리는 군사연습의 명칭은 몇번이고 바뀌어도 전조선을 강경히 위한 미국의 침략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핵폭탄을 휘두르며 전조선반도를 핵침략의 불길속에 몰아넣으려는 수법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이웃나라의 핵침범을 목격하였고 1950년대 미국의 《원자탄위협》을 직접 체험하면서 생리멸의 아픔과 고통을 오늘날까지 안고있는 우리 민족이다.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음모양모로 방해책동을 일삼고있다. 지난해에 북과 남이 홀어친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협의할 때 핵전략포격기들을 급파하고 위협을 하고 핵위협을 가한것이 바로 미국이다. 새해 정초에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는 공화국의 획기적인 방안과 호소가 울려나오기 바쁘게 미국이 《대조선추가제》를 발표한것으로, 인간쓰레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또다시 베라살포에로 내내것으로 북남관계가 개질속에 어떻게 하냐가 로막고 긴장을 격화시켜 이 땅에서 끝끝내 전쟁이 터지게 하자는것이다.

이런 침략적인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쟁연습을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며 우리 민족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들뜨게 될것이다.

이 땅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다. 더이상 외세가 북남관계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통략하게 내맡겨서는 안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할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군부는 공화국의 평화호적인 호소에 호응할 대신 《남조선-미국연합체》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것》이라며 북침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어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지 말고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로 주저없이 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올해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로 제기된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에 핵침범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방어적》이니, 《년례적》이니 하는 미명하에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소동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군부당국이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리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공화국을 목표로 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지난해에 감행된 훈련들에서 위험천만 핵전쟁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고 《평양점령》을 노린 대규모사특작전연습까지 로골적으로 감행된것은 이 전쟁연습들의 침략성과 위험성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포격기들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까지 동원되어 전쟁연습소동이 지난 한해동안 광란적으로 벌어졌것으로 하여 모처럼 찾아온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사라지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라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이러한 전쟁연습소동들이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는

기에 침략적인 외세가 강요한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겪은바 있다. 이제 또다시 외세의 침략야욕의 희생물이 되어 이 강토와 우리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평화는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공화국이 수많은 중대제안들을 발표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여 벌리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중지할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고 호소한것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고 긴장격화를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적환경포장을 요구하는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잘 보여주고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남조선당국은 평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의에 미국과의 위협천만합동전쟁연습을 단호히 그만두는것으로 화답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지금 온 겨레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침략적인 합동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며 하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지금은 남조선당국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대화를 통한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명백히 보여줄 때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지난 세

### 핵전쟁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질 민족정체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통이 크고 대단한 제안을 내놓아 겨레의 통일열기를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려면 북과 남이 마주앉아 흥금을 터놓아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

북남대화는 관계개선과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호상인정

과 존중에 기초하고있다.

반면에 전쟁연습은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무력으로 타도하고자 하는 연습이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함께 벌리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그 규모나 내용, 성격으로 보아 명백히 《방어》가 아닌 북침침공을 위한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은 자라가 풍인하는 사실이다.

이런 북남대화와 전쟁연습이 양립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상대방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핵전쟁연습

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북남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대화를 한것은 좋은 결실을 거둘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해하려고 기회만 노린다면 그런 사람과 마주앉아 도대체 진정을 터놓을수 없다.

공화국은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그것은 수많은 평화제안과 발기들을 통해서도 거듭 증명되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년초부터 온 한해 줄기차게 울려나온 공화국의 진정어린 관계개선의 제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도리어 악화의 길로 줄달음치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주요하게는 북침전쟁연습때문이었다.

조선에서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이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고있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적위기로 몰아가는 주되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그속에서 북남대화로 폭력과 파란의 운명을 면할수 없는 것이 지난 시기의 뼈저린 실례이고 교훈이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년초부터 온 한해 줄기차게 울려나온 공화국의 진정어린 관계개선의 제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도리어 악화의 길로 줄달음치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주요하게는 북침전쟁연습때문이었다.

물과 불이 상극이듯이 북남대화와 동족을 치기 위한 외세와의 대규모전쟁연습은 양립될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더이상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갈것을 바라고있다. 누구도 민족의 이 절절한 요청과 부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그만두면 좋으면 좋았지만 나쁠것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본사기자 서희

어릴적 새해 아침이면 함박눈이 펄펄 내렸으면 하였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새해 첫날에 함박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만복이 쏟아지고 그해는 풍성한 가을이 온다고 들 하였다.

그때는 그 말씀을 다는 몰랐지만 동심은 하얀 눈판에 덩굴고 달리며 저보다 꿈이 나 되는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동무들과 눈싸움에 신나던 새해의 흰눈이 왜 그리도 좋았던지.

이해에도 흰눈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인듯 온 강산을 하얀색으로 단장하며 소담하게 내려쬐인다.

순결하고 정갈한 저 흰눈이 사시정월 하얗게 삼천리 단장해주었으면... 민족분열이 일흔해라는 비

다는 담보는 없다.

군사관계개선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별력이 대치되어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발적인 사소한 군사적행동도 순간에 전면전으로 넘어갈수 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지난 세

죽은 이렇게 한두해도 아닌 70년세월을 그런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이런 비극을 끝장내야 한다.

평화적환경은 북과 남, 겨레모두를 위해 절실히 필요 한것이다.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념사의 구별구별을 새겨보라니 홀날리는 눈송이사이로 통일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이 안겨 오는것이다.

하얀 눈송이가 내린다. 평화로운 삼천리의 푸른창릉에 통일을 없고싶은 나의 마음에 아니 온 겨레의 마음마다에 흰눈송이는 자주통일의 넘원과 의지로 내려쬐인다.

김혜성



침략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백아온 이해의 하늘을 보며

국의 년륜을 세기는 올해에 니의 이 소원은 더욱 간절해 지는것이다.

왜서인가.

장장 70년 저 하늘에는 해마다 외세가 몰아오는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았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은 년 초부터 년말까지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울지 프리덤 가디언》, 《맥스 센디》 등 공화국침략을 노린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었다.

그로 하여 온 한해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았고 북남관계는 악화의 한길로만 내닫게 되었다.

대규모전쟁연습소동으로 평화 위협당하고 불신과 대결이 증폭되게 된것이 더 지난 한해뿐인가. 우리 민

족은 이렇게 한두해도 아닌 70년세월을 그런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이런 비극을 끝장내야 한다.

평화적환경은 북과 남, 겨레모두를 위해 절실히 필요 한것이다.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념사의 구별구별을 새겨보라니 홀날리는 눈송이사이로 통일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이 안겨 오는것이다.

하얀 눈송이가 내린다. 평화로운 삼천리의 푸른창릉에 통일을 없고싶은 나의 마음에 아니 온 겨레의 마음마다에 흰눈송이는 자주통일의 넘원과 의지로 내려쬐인다.

김혜성

## 대담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 행성에 존재하는 나라만도 무려 200여개,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마다 제나라대로의 교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뼈아픈 고통을 안고사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 지배전략에 의해 조선반도가 두동강나는 비극이 생겨난 때로부터 어언 70년, 사람의 한생과도 거의 맞먹는 이 기간 세월 미국은 우리 민족을 대아시아침략정책실현의 희생물로 삼고 시종일관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왔다. 그래서 이르는 한 력사학자도 말한것처럼 현대전쟁사의 갈피를 다룬저보아도 조미대결전의 력사만큼 긴 력사는 없다고 하는것이다.

미국의 력의 정책, 고립압살정책, 회유기만... 이러한 적대시정책이 반복되는 속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세력과 그 뜻을 빼앗으려는 침략세력의 치렬한 대결이 세기를 두고 이어져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력사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처음으로 서산탈린의 운명에 몰아넣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마침내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를 인정하고 정전협정에

의 한 인터넷신문은 《이제 세계는 조선과 미제국주의와 합의의 대결에서 합의의 판세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될것 같다.》고 평한바 있다.

지금 미국국민들속에서도 조미대결전이 지속되면 필수로 미국의 안보가 시시각각 더 크게 위협당하게 되어있다는 여론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결국 지난 70년세월이 보여준것처럼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얻은것이란 세계면전에서 당한 수치와 참패뿐이다.

지금 세계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있으며 대결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여 협력하고 발전하려는것이 시대적 추세로 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의 단검》을 놓지 않으려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계속 가모락고있어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를 파는 결과 될뿐이다.

남을 해치려는자는 자기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자기가 해치려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대단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본사기자 김련옥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뜻깊은 새해를 맞은 첫 아침에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행동들이 나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쪽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요구하는 정의의 호소가 나왔다면 태평양너머 지구의 서쪽에서는 전쟁과 대결을 고집하는 불순한 주장과 행동들이 취해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조국해방 일흔돌과 민족분열 70년이 겹치는 올해의 정초에 장구한 오랜 세월 우리 민족에게 극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아픔을 들쳐온 미국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을 그만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의지를 담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요구에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미국이 이에 호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현 미행정부는 시대와 력사의 이 부름에 응할 대신 파산에 직면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고있다.

현 미집권자가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의 주요기관과 단체들, 개별인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고강도추가제》와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한 《대통령행정명령》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런가하면 미국회에서는 그보다 더한 《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미당국이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에 대한 《제제》소동에 매여달리는것을 보면 그들이 공화국에 대한 구태의연한

대결관념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해에도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와 대결을 추구하겠다는것을 그대로 공표한것이나 같다.

미국이 《쏘니 픽처스》 영화제작보급사가 당한 전대미문의 영화회계에 공화국이 편취되었다고 떠들면서 이번 《고강도추가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감추기 위한 한갖 구실로밖에 되지 않는다.

공화국은 이미 밝힌바와 같이 미국에서 일대 소동을 일으킨 핵경사건과는 아무런 인연도, 관련도 없다. 이에 대해서 세계가 이번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미국집안내부소행이거나 다른 나라들과 관련되어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

하고있는 사실이 증명해준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분별없이 날뛰는것은 새해에 울려나온 공화국의 획기적외에 대한 북의 진정성있는 따박박 놀라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 목적을 이루어보기 위한 분별없는 망동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북남관계에서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공화국의 신년사내용에 대해 《관계개선은 비핵화에 대한 북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느니 하며 벌써부터 차단벽을 치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남의 집일에 간참하며 일러라제라하는 비렬한 북남관계해방군의 진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민족분열을 강요하고 장장 70년이 되도록 분열

의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악의 제국. 그 미국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북남관계개선을 뻔뻔스럽게 가로막고있고 날뛰고있는데 대해 우리 겨레는 누구나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처럼 미국의 추태를 비난하기는커녕 추어주고 같이 추추려고 하는 남조선당국의 얼빠진 행위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부당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니,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립장》이니 뉘나 하며 두둔해나섰는가 하면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도 앞으로 계속 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들었다. 그러면서 새해벽두부터 포살탄사격훈련, 기계화부대야기 동동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소동에 광

분하고있다.

이것이 《대화에 응한다.》는 남조선당국이 할것인가. 지난 한해가 보여주는것처럼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소동은 북남대화를 가로막는 엄중한 장애물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진행될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자는 상대방에 총부리를 내대는것과 같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행위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란만을 받을 행위이다.

지금 이 시각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침략적인 외세에 맹종맹동할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위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바른길에 들어 서야 할 때이다.

김응철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부 비롯한 대전지역의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시청앞에서 일본과의 굴욕적인 군사적협력의 길에 나선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이날에 약정의 형식으로 체결된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 정보공유를 위한 군사적협정이 실지에 있어 20일에 서명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경악을 자아내고있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안정, 평화문제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모르게 처리되었다고 규탄하였다.

리명박 《정권》때 국민의 지향에 부딪쳐 중지된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박근혜 《정권》은 미국까지 합쳐 강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박근혜가 과거죄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을 추구한데 대해 즉시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대담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 행성에 존재하는 나라만도 무려 200여개,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마다 제나라대로의 교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뼈아픈 고통을 안고사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 지배전략에 의해 조선반도가 두동강나는 비극이 생겨난 때로부터 어언 70년, 사람의 한생과도 거의 맞먹는 이 기간 세월 미국은 우리 민족을 대아시아침략정책실현의 희생물로 삼고 시종일관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왔다. 그래서 이르는 한 력사학자도 말한것처럼 현대전쟁사의 갈피를 다룬저보아도 조미대결전의 력사만큼 긴 력사는 없다고 하는것이다.

미국의 력의 정책, 고립압살정책, 회유기만... 이러한 적대시정책이 반복되는 속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세력과 그 뜻을 빼앗으려는 침략세력의 치렬한 대결이 세기를 두고 이어져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력사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처음으로 서산탈린의 운명에 몰아넣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마침내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를 인정하고 정전협정에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뜻깊은 새해를 맞은 첫 아침에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행동들이 나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쪽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요구하는 정의의 호소가 나왔다면 태평양너머 지구의 서쪽에서는 전쟁과 대결을 고집하는 불순한 주장과 행동들이 취해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조국해방 일흔돌과 민족분열 70년이 겹치는 올해의 정초에 장구한 오랜 세월 우리 민족에게 극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아픔을 들쳐온 미국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을 그만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의지를 담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요구에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미국이 이에 호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현 미행정부는 시대와 력사의 이 부름에 응할 대신 파산에 직면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고있다.

현 미집권자가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의 주요기관과 단체들, 개별인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고강도추가제》와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한 《대통령행정명령》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런가하면 미국회에서는 그보다 더한 《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미당국이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에 대한 《제제》소동에 매여달리는것을 보면 그들이 공화국에 대한 구태의연한

대결관념을 털어버려야 한다

하고있는 사실이 증명해준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분별없이 날뛰는것은 새해에 울려나온 공화국의 획기적외에 대한 북의 진정성있는 따박박 놀라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 목적을 이루어보기 위한 분별없는 망동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북남관계에서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공화국의 신년사내용에 대해 《관계개선은 비핵화에 대한 북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느니 하며 벌써부터 차단벽을 치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남의 집일에 간참하며 일러라제라하는 비렬한 북남관계해방군의 진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민족분열을 강요하고 장장 70년이 되도록 분열

의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악의 제국. 그 미국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북남관계개선을 뻔뻔스럽게 가로막고있고 날뛰고있는데 대해 우리 겨레는 누구나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처럼 미국의 추태를 비난하기는커녕 추어주고 같이 추추려고 하는 남조선당국의 얼빠진 행위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부당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니,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립장》이니 뉘나 하며 두둔해나섰는가 하면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도 앞으로 계속 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들었다. 그러면서 새해벽두부터 포살탄사격훈련, 기계화부대야기 동동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소동에 광

분하고있다.

이것이 《대화에 응한다.》는 남조선당국이 할것인가. 지난 한해가 보여주는것처럼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소동은 북남대화를 가로막는 엄중한 장애물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진행될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자는 상대방에 총부리를 내대는것과 같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행위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란만을 받을 행위이다.

지금 이 시각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침략적인 외세에 맹종맹동할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위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바른길에 들어 서야 할 때이다.

김응철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부 비롯한 대전지역의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시청앞에서 일본과의 굴욕적인 군사적협력의 길에 나선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이날에 약정의 형식으로 체결된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 정보공유를 위한 군사적협정이 실지에 있어 20일에 서명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경악을 자아내고있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안정, 평화문제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모르게 처리되었다고 규탄하였다.

리명박 《정권》때 국민의 지향에 부딪쳐 중지된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박근혜 《정권》은 미국까지 합쳐 강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박근혜가 과거죄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을 추구한데 대해 즉시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주제조선의 새로운 100년사에 특기할 2015년 1월 1일 0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장쾌한 축포가 연이어 터져올라 평양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었다.

무수한 불꽃들이 밤하늘을 향해 치달아올라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는가 하면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축포가 오색색렁한 꽃보라로 쏟아져 밤하늘에 일만경을 펼쳐던 그 광경은 열흘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새해를 맞으며 경축의 축포는 지난 시기에도 울렸지만 새해 2015년의 축포는 더욱 황홀하고 눈부시었다. 저 하늘가에 울려퍼졌던 그날의 축포는 무엇을 말해주었는가.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에

## 환희의 축포는 오늘도 깨일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이 최결정에 달한 한해였다. 미국은 대규모침략전쟁장비들과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여놓고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비렬한 《인권》소통에도 매달려 유엔 총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적으로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인들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공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양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각지에 꾸러진 공원, 체육시설들... 어찌 그뿐이라. 과학, 교육, 문학예술, 체육 등 문명국건설에서 이룩한 전변의 세 력사도 모두를 놀래우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전례 없는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므로써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 넘치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

참으로 지난해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대혁신, 대비약으로 쳐갈기고 진리가 어떻게 수호되고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창조와 승리의 한해였다.

2014년의 한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평양의 밤하늘에 터져오른 축포는 그래서 더구나 아름다웠다. 그것을 바라보는 공화국의 남녀로소모두의 가슴도 격정과 환희로 새차게 끓어번지었다. 조선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승리의 또 한해

를 보내고 보다 희망찬 새해 2015년에 들어섰다.

축포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 이 나라의 힘겨운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터져오른 축포의 황홀경처럼 더욱 아름답고 눈부시고 환희로울 것이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마중하는 장엄한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승리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영원한 주제가이다. 그속에서 환희와 승리의 축포는 2015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련속 조선의 하늘가에 터져오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어디서나 불수 있는 새 구호가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이다.

길거리의 대형구호판에도 협동농장과 건설장으로 달리는 대형화물차에도 이 구호는 마치 기발처럼 나뭇가지에 걸려서 휘날리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이 구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구호이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새해를 맞으며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한해의 투쟁방향을 제시하여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받아안고 있다.

올해신년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강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된 정신으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얼마나 강고하고 시원애 찬 투쟁이였는가 하는것은 력사에 널리 알려져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나라를 통채로 빼앗긴 상태에서 손에 무장을 들고 《동맹제》를

꿈꾸던 일제를 상대로 피어린 투쟁을 벌리었다.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결연한 승리를 위한 투쟁의 고비를 헤쳐야 했던 항일무장투쟁의 그 업적함과 강고성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항일혁명선열들은 죽어도 살도 내내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헤쳐며 싸워 승리하였다.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그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말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할수 있게

다 아는것처럼 오늘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계획을 파산시킬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통에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싸워 기어이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백배하다.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는 오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받아안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앞잡이인 과학자들도, 올해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넘쳐수행할 열의에 넘쳐있는 농장원들과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혁신의 동음을 새차게 울려가는 탄부들 그리고 사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가는 건설자들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년초부터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척분변의 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 군민의 가슴마다에 고동치는 백두의 혁명정신

한 정신적무기였다.

이렇게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공화국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무궁변영의 명맥을 이어주는 퍼줄기로, 최후승리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되어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강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된 정신으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얼마나 강고하고 시원애 찬 투쟁이였는가 하는것은 력사에 널리 알려져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나라를 통채로 빼앗긴 상태에서 손에 무장을 들고 《동맹제》를

꿈꾸던 일제를 상대로 피어린 투쟁을 벌리었다.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결연한 승리를 위한 투쟁의 고비를 헤쳐야 했던 항일무장투쟁의 그 업적함과 강고성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항일혁명선열들은 죽어도 살도 내내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헤쳐며 싸워 승리하였다.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그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는 오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받아안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앞잡이인 과학자들도, 올해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넘쳐수행할 열의에 넘쳐있는 농장원들과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혁신의 동음을 새차게 울려가는 탄부들 그리고 사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가는 건설자들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년초부터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척분변의 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공화국의 2015년은 웅대한 포부와 희망, 신심과 락관속에 찾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인민들은 누구나 기쁨에 넘쳐 눈부신 꿈을 즐겁게 맞이하고 보다 휘황찬란할 조국의 한해를 그려본다.

바라는 꿈이 기적같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맞이할 승리가 환하게 보여 눈비가 내리듯 바람이 세차도 두려움울 모르고 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이 나라 인민이다. 강국의 희망, 변영의 희망을 안고 원수님을 모신 궁지로 가슴설레는 인민이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플라 인민유원지의 거울집과 웃음집을 비롯한 인민사람의 창조물들마다에서 부락의 희열을 마음껏 느끼며 레일에 대한 환희로 가슴부푸는것이다.

거리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희열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락차 있다. 너무나 가슴벅찬 기적과 변혁속에, 상상도 못했던 황홀경속에 맞고 보던 2014년이어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더욱더 큰 것이다.

어찌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렇듯 레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으로 가슴부푸는 것인가.

그것은 온 나라 가정애, 전체 인

## 희망넘친 한해

민들에게, 귀여운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뜨겁게 보내주신 위인의 따뜻한 사랑의 축복이 있어서이다.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과 사회, 조국을 위해 일하는것을 궁지로, 행복으로 여기는 인간사랑의 화원에서 사는 남다른 궁지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나라의 커가는 국력에 대한 자부과 강국의 아름다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이다.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꽃나기처럼시절애 온 얼굴이 형체가 없이 타버려 질망속에 시들어버릴뻔 했던 대관군의 한 처녀가 8년만에 기적적으로 잃었던 얼굴을 되찾고 환희에 넘쳐 희망을 꿈꾼다. 적들에게 유인랍치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다시 조국의 품에 안긴 청소년들이 회열과 랑만에 넘쳐 공학박사, 영웅, 딸크병, 《푸에블로》호와 같은 미국놈들의 간첩배를 잡는 해병, 교관, 수예가, 이름난 로리사, 유명한 영화배우, 훌륭한 미술가로 될 희망을 꿈꾼다.

희망넘친 공화국은 나날이 젊어지고 더욱 밝아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어갈 때 공화국에서는 회열과 랑만에 넘친 인민들이 새해에 보다 휘황찬란할 만부의 꿈을 꾸다.

본사기자 고영숙

새해 2015년에 들어선 공화국의 발걸음은 힘차다.

공화국이 나아가갈 한해의 밝은 앞길을 제시해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무한히 고무되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 일흔돐, 조선로동당창건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 일 일남이 모두의 가슴에서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들이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량강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수많은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련일 진행되고있다.

평양시군중대회에서 보고를 한 김수경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며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변영을 위한 총공격전으로 힘있게 부르는 전투적기치라고 하면서 수도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년사의 구호를 높이 들고 뜻있는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고 호소하였다.

창조와 변혁의 더 큰 성과를 예고해주는 희망찬 2015년에 들어선 인민들의 열의가 하늘을 찌

르는 속에 새해백두부터 도처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건설부문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능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조선로동당창건일흔돐전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해 건설의 동음을 새차게 울려가고 있다.

북방의 철의 기차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들이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1일 0시 새해의 첫 출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3일 3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1.4분기 쇠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과 석탄공업부문에서도 련일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주민세대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들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지난해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지은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새해에는 더 풍성한 농사작황을 이룩하기 위해 이해의 첫날부터 거름생산과 운송 등 한해농사준비를 다그치며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자주의 나라, 인민의 조선을 눈애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

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여전히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부강조국의 래일을 창조해가는 군민의 기세는 꺾을수 없으며 그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도 없다.

최후의 승리는 정의와 불패의 보검을 들어온 공화국에 있으며 2015년에 조선에서는 더 큰 승리의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새해 첫날부터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철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이 땅 어디에나 기쁨과 희망에 넘치고 발걸음도 가벼이 새해진군길에 나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신심과 락관이 비껴흘렀다. 보다 휘황찬 미래를 마중해가는 환희를 더해주며 노래가 울려 퍼진다.

**방직연구사의 금지**

회열에 넘쳐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속에서 기자는 한 처녀의 시선을 만났다.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방직연구소에 다니는 조옥심연구사였다. 예지가 반짝이는 두눈, 어딘가 고집스러움을 엿보게 하는 도두룩한 이마, 물음두갈은 입술, 부드럽게 곡선미를 그린 코마루며 파도마냥 굴절대는 머리모양마저 눈속에 핀 한뼘기의 꽃마냥 싱싱함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처녀였다.

기자과 설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그는 방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받아안고 연구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과학연구부문에 있어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우리 누구나 기쁨에 넘쳐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맞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꽃피 레일도 즐겁게 맞네 밝고밝아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만부의 희망 넘치는 나의 조국아 ...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하신 신년사의 구절이 새겨져 있는 조이박통 심장에 새겨져 높이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오늘의 최첨단 돌파전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이 아니라 백두의 칼바람

**나래치는 희망**

사람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마련이지만 방직연구사로서의 그의 금지치는 남다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날로 커가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친필마다에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방직연구사가 될 그의 꿈은 이미 중학 시절에 움터났다.

《중학시절엔 인기있는 가수도 되고싶었고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체육인이나 영웅도 되고싶었습니다. 꿈을 꾸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콧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의 **꿈**

정신으로 원수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저를 떠밀어주시는것만 같아 막 이렇게 연구소로 달려가는 참이랍니다.

경공업부문의 과학자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를 지켜서다는 자부심에 넘쳐있는 그를 보드라니 무척 대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꿈은 그후 한덕수평양공업대학을 거쳐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방직연구소에 배치되는 날 더 활짝 나래웠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달랐다. 대학시절에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어려운 실천적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던 것이다.

방직연구소에 오자마자 그는 현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어려운 기술과제들을 스스로 맡아안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더우기 년한과 경험이 부족한 그에게 있어서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데트론인전 방사공정을 새롭게 확립하

는 연구과제는 실로 험치 않았으나 오랜 연구사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어려운 탐구의 길을 주저없이 헤쳐나갔다. 이 나날 그는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도유망한 과학자로, 학위소유자로 자라났다.

《한해도 다 저물어가던 **최첨단**을 향하여

인생의 제일 행복한 순간은 연구성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때라고 말하는 조옥심연구사.

새해를 맞으며 그는 방직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최첨단과제를 목표로 하는 연구과제가 실현되면 천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된다.

꽃을 보면 열매를 알수 있다고 했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여가는 조옥심연구사로서 기자는 그의 연구사업에서의 성과를 믿어

에 조옥심연구사는 책임감과 외국어학습이라고 대답하였다.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휴식일에조차 독서와 외국어학습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가 자습으로 여러 나라의 말을 습득하고 외국기술자들과 그 나라의 속담과 방언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능란하게 대화할 때면 누구나 혀를 내두르곤 한다.

—본보고싶은 여성과학자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양말포장공정의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평양 기계대학의 조수경연구사입니다.》

최첨단을 돌파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길에 우리 시대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그의 높은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고 있는 조수경연구사에게 물어 보았다. 《연구과제를 끝내고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옥심연구사(가운데)

연구사이다.

그가 존경하는 녀성들 가운데는 외국의 한 녀성도 있다. 평범한 농촌녀성으로부터 력사에 보기도 못한 천재의 기술자로 이름을 남기고 세기를 두고 칭송을 받는 녀성, 중세기에 천재는 기술을 세계일류의 수준에 올려세웠다라는 외국의 한 녀성처럼 우리 나라의 방직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최첨단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겠다는것이 그의 야심찬 목표이다.

—리상적으로 그려보는데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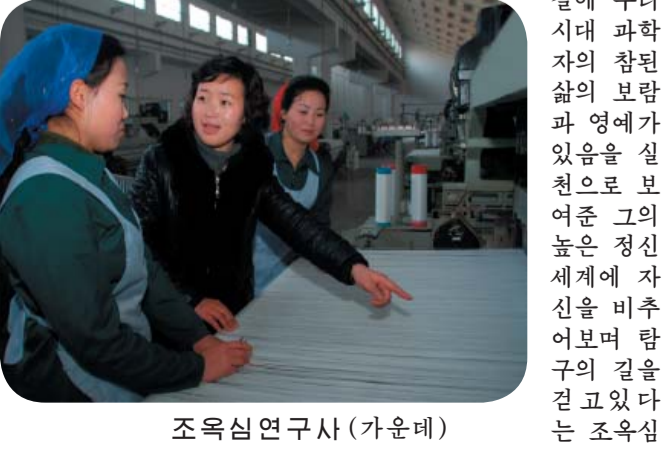
《그물음에 《시원시원하면서 통이 큰 성격의 지니형.》이라는 말이 들어왔다. 여기에 오늘의 지식경제시대가 부르는 과학기술인재이면 더욱 리상적이 라고 한다.

—그런 형의 애인을 만났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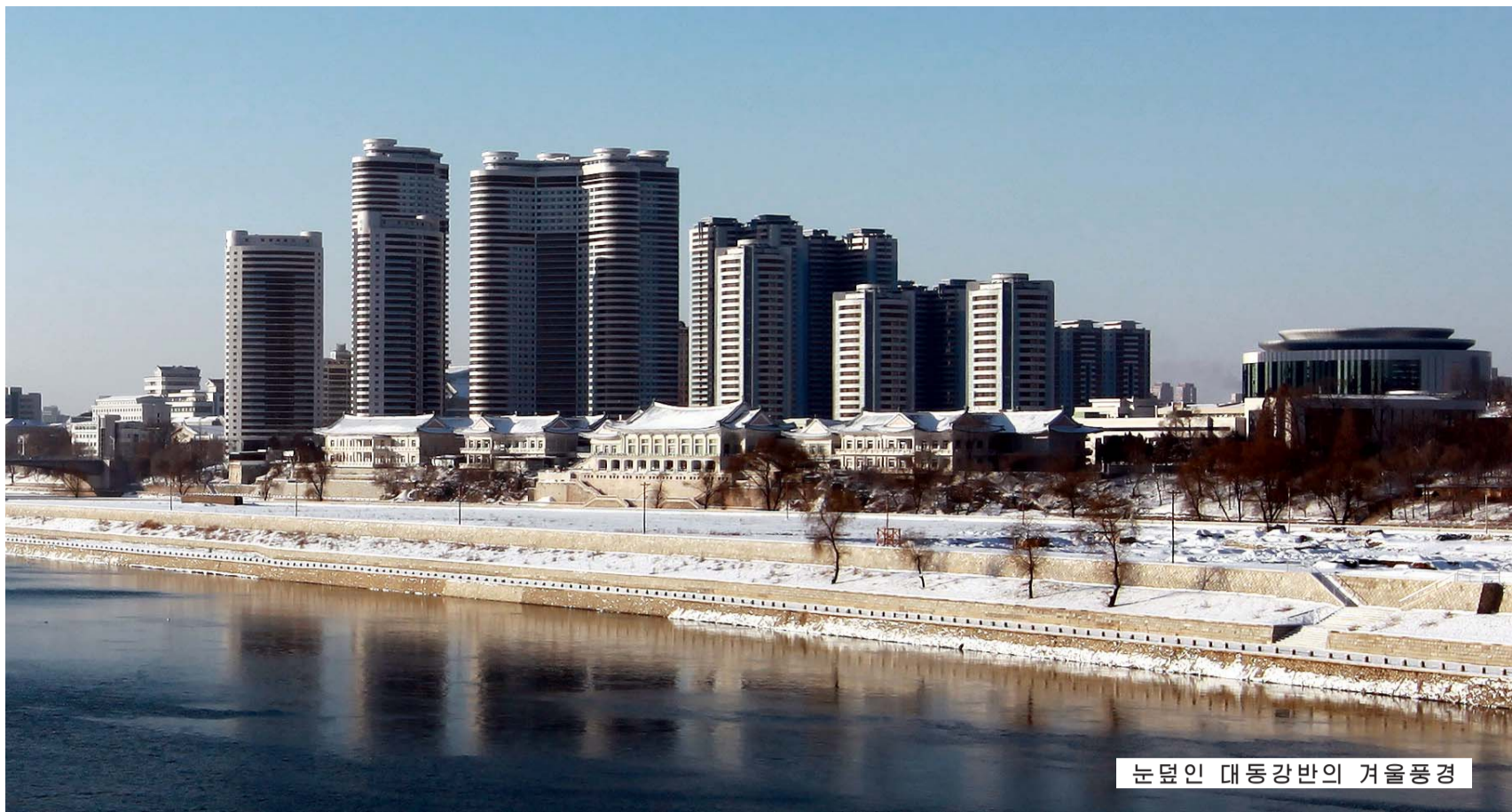
《예. 사견지 몇달 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인데 제대군인답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학벌도 랑구시원이 보였어요. 거기에 반했다고 해야 할지...》

새해에 국수를 먹어야 하지는 않가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연구과제를 끝내고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라며 살짝 얼굴을 붉혔다.

본사기자 홍범식



조옥심연구사(가운데)



눈덮인 대동강변의 겨울풍경

겨울철의 심한 추위는 피부를 건조하고 혈압을 높이며 나아가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많이 준다.

그러나 겨울철기후는 일반적으로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정상생리 기능을 자극하여 몸단련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후라고 할 수 있다.

겨울철몸단련은 추위를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데서뿐 아니라 용감성, 인내성, 강의

성을 키우는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겨울철에 몸단련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환절기와 봄철의 영향을 쉽게 극복할 수

### 겨울철몸단련

있으며 여름철무더위와 관련된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몸단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해질 무렵이다.

이때 인체반응의 감도 및 적응능력은 모두 최고에 이르며 맥박수와 혈압도 가장

고르롭다. 때문에 해질무렵에 운동을 하면 몸에 리로우뿐 아니라 운동효과도 비교적 좋을 수 있다.

겨울철몸단련에는 보온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하며 운동한 다음 땀이 식은 상태로 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 겨울철민속놀이 팽이치기

어린애와 장독은 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추위를 타지



않은것은 늘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였기때문에 몸이 건강하여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결국 어린애가 얼지 않는다는것은 추위에 겁을 먹지 않고 집안에 박혀있는것이 아니라 밖에서 뛰놀고 동태가 좋

다하게 뛰어다니거나 여가 지 체육유희와 함께 겨울철 민속놀이 팽이치기에

겨울 추위를 이겨 나간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활동적이고 쾌활한 모습이

표현한 말이라

고 해야 할 것이다. 겨울철에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한 놀이는 팽이치기이다.

팽이치기는 팽이와 팽이채만 있으면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 자기 손으로 모양이 굵고 오래 돌도록 모양을 깎으며 또 팽이에 색칠을 하는 과정에 어린이들의 손재간이 늘며 사고력이 발달되므로 유익한 놀이로 알려져 있다.

팽이치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다. 두명 혹은 그 이상의 어린이가 같은 시간을 팽이가 오래 도는가를 겨루었고 팽이를 힘껏 쳐서 서로 부딪치게 하여 누구의 것이 견디는가 다투었으며 팽이를 치면서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내기도 하였다.

오늘도 어린이들속에서 널리 진행되고있는 팽이치기는 여러가지 놀이방법이 다 재미있으며 어린이들의 육체단련에도 좋은 유희이다.

본사기자

## 최영장군의 벼루 (3)

글 정 의 선, 그림 김 윤 일

《이 천하에 발칙한 놈, 이젠 리시중대감님까지 걸고들여? 통치처참한 놈. 애들아, 저놈이 벼루를 숨기고는 황당한 말을 꾸며대는 것이 분명하니 저놈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태장을 다스려야겠다. 형틀에 걸박해라.》 하고 소리쳤다.

군정들이 십자형형틀을 가져다놓고 로인을 멍강 들어 형틀에 얹어놓고 거기에 달린 가죽끈으로 잔등과 허리, 무릎과 발목 그리고 두팔을 벌려 손목과 팔꿈 등을 결박하였다. 조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놈아, 태장맞을 보아야 대답하겠는가. 벼루를 어디에 감추었어?》

《벼루는 하늘로 날아갔다.》

《패배한 놈. 그놈을 매우쳐라!》

조준의 명령에 군정들이 연약한 로인의 영지와 잔등에 사정없이 태장을 안기었다. 태장이 떨어질 때마다 로인의 몸은 떨렸고 영지와 다리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허나 로인은 입을 욱물고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머리카락이 형틀에 맥없이 늘어졌다.

조준이가 악을 썼다. 《그만 쳐라. 이놈, 맛이

어머냐? 벼루를 어디에 숨겨서?》

《난 모른다. 그걸 알려거든 옥황상제께 물어봐라!》

《맛이 어찌...》

《이제 신비한 그 벼루가 조화를 부려 반드시 네놈들을 징벌할 것이다. 최영장군, 소인도 장군을 따라 저승으로...》 말을 다 맺지 못하며 로인은 피멍이를 토하고 개를 맥없이 떨구더니 이내 숨이 죽었다.

리성계는 조준으로부터 신기한 벼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좀 주눅이 든 목소리로 말했다.

《내 최영의 벼루이야기를 전에 들은바 있네. 벼루를 신주모시듯 한다는 말도 들었고... 최영이가 그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쓰면 자기가 원하는것을 성취했다는 말도 들었네. 정말 신비한 벼루일수도 있지. 하지만 그 벼루이야기가 더 퍼지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해야 하겠네.》

벼루의 신비함에 리성계도 위압을 당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저지르 떨리었다.

《이제 신비한 그 벼루가 조화를 부려 반드시 네놈들을 징벌할 것이다. 최영장군, 소인도 장군을 따라 저승으로...》 말을 다 맺지 못하며 로인은 피멍이를 토하고 개를 맥없이 떨구더니 이내 숨이 죽었다.

리성계는 조준으로부터 신기한 벼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좀 주눅이 든 목소리로 말했다.

《내 최영의 벼루이야기를 전에 들은바 있네. 벼루를 신주모시듯 한다는 말도 들었고... 최영이가 그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쓰면 자기가 원하는것을 성취했다는 말도 들었네. 정말 신비한 벼루일수도 있지. 하지만 그 벼루이야기가 더 퍼지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해야 하겠네.》

벼루의 신비함에 리성계도 위압을 당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저지르 떨리었다.

《이제 신비한 그 벼루가 조화를 부려 반드시 네놈들을 징벌할 것이다. 최영장군, 소인도 장군을 따라 저승으로...》 말을 다 맺지 못하며 로인은 피멍이를 토하고 개를 맥없이 떨구더니 이내 숨이 죽었다.

《그만 쳐라. 이놈, 맛이

### 방대한 불교총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불교교리를 종합하여 13세기 고려에서 만든 책이다.

15년(1236-1251년) 동안 8만여매의 대장경목판과 1539종에 6793권에 달하는 책을 만들었다.

이 책들은 현재 묘향산에 건설한 팔만대장경보존고에 있고 대장경목판은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산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다.

이 대장경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정확하며 풍부한 것으로 하여 당시 주변나라들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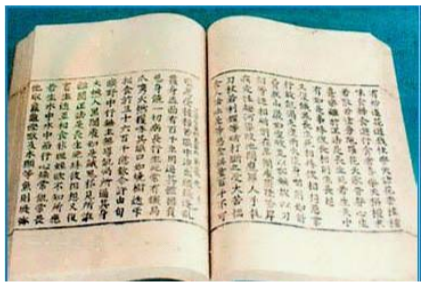
일본은 조선봉건왕조 초기 100여년 동안 80여차례에 걸쳐

대장경을 찍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40여회나 인쇄해 갔다.

이 대장경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불교연구의 표준대장경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디아어대장경, 한문대장경, 몽골어대장경 등 6가지가 있으나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처럼 완비된것은 없다.

본사기자



### 인기를 끌고있는 도서 《료리가공묘리》

료리기술을 높이는것은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특히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보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료리를 만드는것은 금양봉사부문의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 누구나 관심하는 문제이다.

최근 조선료리협회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와 료리가공의 지향에 맞게

료리가공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료리사들과 가정의 식생활을 풍만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가정주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서 《료리가공묘리》를 만들어 내놓았다.

도서에는 료리가공실천에서 자주 맛있게 되는 기술적문제들과 식생활과정에 특화된 음식물가공의 묘리들이

《뽕 료리》 문경윤은 더 못지 않았다.

문경윤이 듣기에는 최영장군의 벼루에는 통틀임한 것이 아니라 벼루 앞면 오른 쪽에는 소나무를 새기고 소나무에는 학이 앉아있으며 왼쪽에는 대나무숲을 그리고 그속에 호랑이를 새겼었다. 벼루에는 통틀임을 했더니 그 벼루가 최영장군의 벼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이러하여 현사의 측근장병들은 푸짐한 연회상에 둘러앉아 진랑치듯 먹고마시고 하면서 이날을 즐겼다. 술들이 거나해지자 말들이 많아졌다. 이때 문경윤이가 자기 동료에게 던지시 물었다. 《자네가 최영장군의 벼루를 박살냈다면?》 《그대 내가 박살냈지.》 《손이 떨리지 않던가?》 《최유연 사형수의 목을 칠 때보다 더 떨리더군. 몸



이 오싹하구 등골로 식은땀이 흐르더구만. 허나 마음을 다잡고 큰 메로 대들에 놓은 벼루를 내려치니 그 벼루가 산산조각이 나더군. 뽕 신기하 벼루라고 해서 그 어떤 조화를 부리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는데 신기하진 뭐가 신기해. 보통벼루나 다름이 없더군.》

《그 벼루에 어떤 글자나 그림은 없던가?》

《글자는 모르겠는데 료림이 새겨진것이 보여어.》

《뽕 료리》 문경윤은 더 못지 않았다. 문경윤이 듣기에는 최영장군의 벼루에는 통틀임한 것이 아니라 벼루 앞면 오른 쪽에는 소나무를 새기고 소나무에는 학이 앉아있으며 왼쪽에는 대나무숲을 그리고 그속에 호랑이를 새겼었다. 벼루에는 통틀임을 했더니 그 벼루가 최영장군의 벼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뽕 료리》 문경윤은 더 못지 않았다. 문경윤이 듣기에는 최영장군의 벼루에는 통틀임한 것이 아니라 벼루 앞면 오른 쪽에는 소나무를 새기고 소나무에는 학이 앉아있으며 왼쪽에는 대나무숲을 그리고 그속에 호랑이를 새겼었다. 벼루에는 통틀임을 했더니 그 벼루가 최영장군의 벼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뽕 료리》 문경윤은 더 못지 않았다. 문경윤이 듣기에는 최영장군의 벼루에는 통틀임한 것이 아니라 벼루 앞면 오른 쪽에는 소나무를 새기고 소나무에는 학이 앉아있으며 왼쪽에는 대나무숲을 그리고 그속에 호랑이를 새겼었다. 벼루에는 통틀임을 했더니 그 벼루가 최영장군의 벼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뽕 료리》 문경윤은 더 못지 않았다. 문경윤이 듣기에는 최영장군의 벼루에는 통틀임한 것이 아니라 벼루 앞면 오른 쪽에는 소나무를 새기고 소나무에는 학이 앉아있으며 왼쪽에는 대나무숲을 그리고 그속에 호랑이를 새겼었다. 벼루에는 통틀임을 했더니 그 벼루가 최영장군의 벼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뽕 료리》 문경윤은 더 못지 않았다. 문경윤이 듣기에는 최영장군의 벼루에는 통틀임한 것이 아니라 벼루 앞면 오른 쪽에는 소나무를 새기고 소나무에는 학이 앉아있으며 왼쪽에는 대나무숲을 그리고 그속에 호랑이를 새겼었다. 벼루에는 통틀임을 했더니 그 벼루가 최영장군의 벼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 석굴암

평양민속공원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돌굴형식의 사찰로서 8세기중엽에 건설된 경주석굴암의 모형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1대1의 축적으로 원래의것과 똑같이 만들어놓은 이 석굴암은 산비탈을 파서 터를 닦고 화강암석재를 다듬어 굴을 쌓아 그우에 흙을 덮어 만들었다. 4각형으로 된 앞칸과 원형으로 된 안칸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석굴암은 앞칸과 안칸이 짧은 사이길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등근굴간(직경 7.2m)은 8각대좌우에 앉아있는 중심부처를 가운데에 두고 벽면을 이루는 길이 2m이상의 15개 병풍돌(면돌)에 새긴 조각과 병풍돌우의 10개의 갑안에 있는 측근자들의 조각이 중심부처를 향하여 배치된 형식으로 되었다. 이 등근굴간의 천정은 반구형으로 5단 짜여졌는데 우의 세단에는 총마다 10개씩의 새기를 장식하여서 구조적인 경교성을 보장하면서도 마치 해살이 퍼지는것과 같은 예술적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우에 커다란 띠를 새긴 두 평돌을 덮었다. 벽면 병풍돌조각은 앞으로부터 오른쪽에는 제석천과 문수보살, 5개의 라한상들을, 왼쪽에는 범천과 보현보살, 5개의 라한상들을 각각 배치하고 부처의 바로 뒤에 있는 11면관음상을 돌출새김하여 배치하였다. 이 병풍돌들의 우에 있는 10개의 갑안에는 앉은자세로 각이한 생활상대적모습을 한 보살상조각들이 들

어 있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앞칸과 굴칸으로 들어가는 짧은 사이길은 부처세계를 지키는 사천왕상과 인왕상, 8부중상들을 새긴 면돌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굴칸입구에는 고구려쌍기둥무덤의 기둥을 원상케 하는 2개의 8각기둥이 서있다. 앞칸에는 동쪽벽과 두 옆벽에 8부중상이, 사이길에 있는 서쪽벽의 좌우에 인왕상이 배치되어있으며 사이길 두 벽면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있다. 안칸과 사이길의 조각들은 안온하고 엄숙한 뒤방 분위기와는 달리 무섭게 형성되어 수호신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있으며 형상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 석굴암은 다른 나라의 자연석굴사원들과는 달리 고구려의 돌간혹무덤간혹형식을 본받은 독특한 형식의 석굴사찰이다. 고구려시기에 기본적으로 완성된 민족적건축양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조각을 비롯한 여러가지 치례를 잘 결합시켰기다.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만들 당시 사람들은 앞칸을 4각형으로 하고 안칸을 원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꼴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우주관에 기초한것으로서 앞칸은 《지상세계》를, 안칸은 《극락세계》를 가상한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경주석굴암은 자연과 건축, 건축과 조각, 조각상간의 유기적 통일과 형상적치리에서 높은 경지를 보여준 후기신라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손꼽히고있다.

경주석굴암은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을

감심없이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라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 아스피린, 감기알약, 진통알약: 열이 날 때, 머리가 아플 때, 이발이 쏠 때, 근육이 아플 때, 신경통, 류마치스 등에 쓴다.

◆ 아스피린알약: 한번에 1~2알씩 밤 먹은 다음에 먹는다. 물에 풀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먹어야 한다.

◆ 감기알약: 한번에 1~2알씩 하루 3번 끼니 사이에 먹는다.

◆ 진통알약: 한번에 1~2알씩 하루 3번 먹는다.

◆ 피라미돈: 미열이 계속 날 때, 머리가 아플 때, 신경통, 류마치스, 감기, 금성관절염, 편두통 등에 쓴다.

◆ 가루약: 한번에 0.1~0.2g씩 하루 3번 먹는다.

◆ 알약: 한번에 1~2알씩 하루 3~4번 먹는다.

본사기자

### 유모아

#### 독을 사러 간 골방선님

어느 여름날 글밭에 모른 한 시골선비가 집에 독을 하나 장만해야 할 일이 생겼다. 《독이란 좋고 나쁜것이 있으니 아무나 가서는 랑패하기 십상이야. 아무래도 이런 일에서는 글공부를 많이 한 내가 가자.》

선비는 돈을 절렁거리며 독장사군에게 갔다. 독장사군은 선비를 데리고 독을 견사한 뒤울안으로 갔다. 그런데 여름장마때여서 독들을 모두 얼어놓은채로 견사해놓고있었다.

《자, 어서 마음에 드는 독을 고르시오.》

선비는 독들을 힐끔힐끔 살펴보고나서 못마땅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에 무슨 독이 있던 말이요?》

독장사군은 혹시 선비가 소경이 아닌가 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비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날 속일 생각일랑 아예 마시우. 이레부터 십년동안 바깥출입 한번 안하고 글을 외운 사람이요. 책에 썩어있

기를 예로부터 독이란 물건은 우는 열리고 아래는 막힌 물건이요. 그래서 우로 물이 넘어야 아래가 막혀 물이 넘어가는것이요. 그런데 이 건 전부 우가 막혔으니 도대체 어디로 물을 넣는단 말이요. 또 설사 물을 넣는단 해도 아래가 열렸으니 모두 새버릴게 아니요. 그러니 이런 물건을 어디에 쓰겠소.》

선비의 말에 독장사군은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데 여름장마때여서 독들을 모두 얼어놓은채로 견사해놓고있었다.

《자, 어서 마음에 드는 독을 고르시오.》

선비는 독들을 힐끔힐끔 살펴보고나서 못마땅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에 무슨 독이 있던 말이요?》

독장사군은 혹시 선비가 소경이 아닌가 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비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날 속일 생각일랑 아예 마시우. 이레부터 십년동안 바깥출입 한번 안하고 글을 외운 사람이요. 책에 썩어있